

韓醫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近世 韓方小兒科의 學術的 傾向
(1910년부터 1960년까지)

徐榮珉, 金璋顯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小兒科學教室

A study on the Tendencies of Oriental Pediatrics by Researching Academic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in Modern Korea (from 1910 to 1960)

Seo Young Min, Kim Jang Hyun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 Oriental pediatrics at the Late-Joseon had constantly developed positively, independently, originally, but depressed since Japanese imperialism because the western medicine flowed into Korea and Japanese imperialism carried out the oriental medical obliterating policy.

As a effort of oriental medical group that coped with the obliterating of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 were publication of oriental medical academic journal and it is important data that we comprehended the tendencies of oriental pediatrics in modern korea.

Method: We studied academic journals on oriental medicine in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and selected 31 volumes of nine academic journals out of 80 volumes of twelve academic journals, which is contained pediatrics contents.

Result & Conclusion: Research into these journals has derived the conclusion that the oriental pediatrics academic trend at the time were transformed into new state which brought the interaction and balanced the merit of oriental-western medicine.

Key words: oriental pediatrics, academic journals, Japanese imperialism

교신저자 : 김장현,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90-1번지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소아과
(Tel. 054-770-1260, E-mail : kjh@dongguk.ac.kr)

緒論

小兒科學은 胎生期부터 靑少年期에 이르기까지 成長發達하는 과정에서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으로 健全하게 자라서 훌륭한 성인에 될 수 있도록 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年齡에 따른 健康의 標準을 講究하고 소아특유의 生理 病理을 연구하는 동시에 여러 질병의 豫防과 治療, 保健, 護理의 方法을 연구하는 분야로¹⁾, 현재의 小兒科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小兒科學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²⁾.

韓方小兒科學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돌보아 온 民族醫學의 한 분야로 朝鮮後期에 접어들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고³⁾, 『東醫寶鑑·小兒門』을 계기로 經驗爲主의 實證主義 醫學을 지향하여 왔으며⁴⁾, 우리나라 최초의 小兒科 專門書인 『及幼方』 등의 醫書가 간행되어 自主의 傳統이 확립되어 왔으나⁵⁾, 日帝가 朝鮮에 침범하여 西洋醫學 爲主의 醫療政策, 醫療制度上 韓醫學의 疏外, 韓醫學 教育機關 設立의 不許와 같은 政策의 抑壓과 排除 때문에 主體的으로 西洋醫學의 智識을 받아들여 攝取 同化시켜야 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韓醫學의 自體의 成長마저도 阻礙되고 말았다⁶⁾.

韓醫界는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韓醫學의 連續性을 維持하고자 學術雜誌의 刊行⁷⁾, 韓醫師 團體의 結成⁸⁾, 韓醫學 教育機關의 設立⁹⁾ 등 여러 각도로 노력하였고, 이 과정 중에서 韓方小兒科學 또한 다른 韓醫學 分野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韓醫學 學術雜誌는 당시 韓醫界의 動向이나 韓醫들의 韓醫學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엿볼 수 있고, 韓醫界가 外部的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이 學術研究方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資料로 評價 받고 있으며¹⁰⁾, 韓醫學의 基本的 理論 뿐만 아니라 臨床的으로 小兒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著者는 1910년에서 1960년대까지의 韓醫學 學術雜誌에 記載되어 있는 小兒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時代的 狀況과 小兒科와 關聯된 學術傾向의 變化 등에 대한 약간의 智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研究方法

韓國韓醫學研究院의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에 Data base 되어 있는 韓醫學術雜誌 12種 80卷 가운데 小兒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9種의 雜誌 31卷을 조사하여 發行時代 順으로 정리한 뒤 번호를 붙이고, 發行年度, 著者, 內容 등을 정리하였다.

本論

1. 漢方醫藥界

1) 小兒生長調護論

著者: 崔奎憲

第 2號 (1914年 1月)

小兒의 發育生成 過程을 韓醫學의 病理過程과 關聯시켜 자세히 說明하고 있으며, 특히

變蒸候에 의한 五臟과 六腑의 生成과 五臟의 虛弱에 따른 治療病理를 자세하게 說明하고 있다.

2. 醫藥月報

1) 兒科學

著者: 醫師 李元珪

第 1 卷 第 2 號 (1914 年 9 月 10 日)

第 1 卷 第 3 號 (1914 年 10 月 10 日)

第 1 卷 第 4 號 (1914 年 11 月 10 日)

第 2 卷 第 5 號 (1915 年 3 月 25 日)

第 2 卷 第 7, 8 號 (1915 年 9 月 25 日)

第 2 卷 第 9 號 (1915 年 10 月 25 日)

第 2 卷 第 11, 12 號 (1916 年 2 月 5 日)

小兒의 生理 및 疾病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2號에서 4號까지는 小兒의 解剖學的 構造와 함께 消化器, 泌尿器, 皮膚 및 臍帶, 筋肉과 骨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5號에서 7,8號까지는 小兒의 人工營養과 離乳食에 관하여 敘述하고, 營養障礙에 대한 原因과 症狀, 治療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9號에서는 急性 消化障礙와 感染性 疾患 등을 豫防하기 위한 方法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11號와 12號에서는 人工營養兒의 營養障礙인 平衡失調, 消化不良, 消耗症 등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2) 小兒結核 及 百日咳의 藥物療法에 對하여

著者: 醫師 姜正元

第 1 卷 2 號 (1914 年 9 月 10 日)

各種 呼吸器 疾患에 대해 豫防할 수 있는 '지오고루'라는 藥物을 說明하고 있으며, 특히 百日咳나 結核과 같은 慢性 細菌性 感染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藥의 服用에 있어 필요한 食餌 養生療法에 대해서 說明하고 있다.

3) 사체검안해부검사기록

著者: 醫師 弦閔孝三

第 1 卷 第 4 號 (1914 年 11 月 10 日)

小兒의 死體를 檢案하여 死因을 糾明하고자 한 記錄으로 身長과 皮膚의 狀態, 死體의 剛直, 頭部에서 背部까지의 皮膚色을 確認하여 記錄하고 있다.

4) 奇異한 病及治療

著者: 漢法醫生 韓錫燁

第 1 卷 第 4 號 (1914 年 11 月 10 日)

7歲 女兒의 眼病과 5歲 女兒의 陰門搔痒症에 있어 石雄黃의 殺菌 效能을 이용한 治療證例

를 說明하고 있다.

5) 小兒養育의 新法

著者: 기록 없음

第 2分 2號 (1915年 2月 25日)

米國의 人生共進會에서 小兒의 우유마시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금을 걸고 地域 小兒의 發育과 健康狀態를 檢査하여 우수자에게 賞을 주었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小兒의 發育과 健康狀態의 評價를 위한 方法과 部分別 點數에 대해서 說明하고 있다.

6) 婦人小兒論

著者: 漢法醫 朴台鎭

第 2分 第 3號 (1915年 3月 25日)

小兒와 婦人科 疾患의 治療에 대한 어려움을 古典의 原文 등을 引用하여 說明하고 있다. 특히 小兒의 診察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疾患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疾患들이 成人과 달라, 抑肝補脾를 根本으로 하고 淸熱利水로 標를 삼아야하며, 脈이 불완전하고 問診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疾病의 原因을 깊게 연구하고 바르게 判別하여 치료함에 있어 항상 慎重을 기해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7) 小兒症候의 各論

著者: 漢法醫 松菴 李鍾善

第 2分 第 3號 (1915年 3月 25日)

小兒는 氣血과 稟質이 成人과 다르고 言語가 不能하기 때문에 診察과 藥을 사용하는데 어려우며, 小兒의 흔한 疾病으로 吐瀉, 厥逆, 風寒暑熱과 瘡疹, 痘毒은 視診에 依存하고, 臟腑와 관련된 疾患에 있어서는 三部九候法에 依存해야 한다고 紀錄하고 있으며, 睛明穴의 色을 보고 五臟을 診斷하는 方法도 서술하고 있다.

8) 小兒의 痙攣及療法

著者: 平水 金銖衡

第 2分 第 3號 (1915年 3月 25日)

朝鮮醫會에서 講義하였던 내용을 敘述하고 있다. 機械的 腦疾患으로 인한 症候性 痙攣과, 體外 毒으로 인한 中毒性 痙攣, 癲癇性 痙攣, 重症의 營養障導로 인한 臨終痙攣으로 原因을 分類하였으며, 痙攣의 症狀를 詳細하게 說明하고 있다. 痙攣의 治療方法으로 蓖麻子油를 이용한 瀉法이나 煮沸水 혹은 茴香茶를 이용한 吐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主要 死亡의 原因이 窒息과 心臟停止로 因하기 때문에 發作 中에 일반적인 施術은 오히려 해롭다고 敘述하고 있다.

9) 養兒의法 (臨床講義)

著者: 기록 없음

第 2卷 4號 (1915年 4月 25日)

小兒을 養育하는데 있어서 飲食과 依服의 選擇이 重要하며, 泄瀉, 痢疾, 驚風, 風丹, 痘疹, 咬傷, 墜撲, 急疾의 種類가 아니면 藥物을 통한 治療가 必要하지 않으며, 특히 小兒은 腸이 萎弱해서 藥石을 加하면 眞氣가 損傷 될 뿐 아니라, 나중에 非正常的인 疾病을 治療하고자 할 때 藥效의 反應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敍述하고 있다.

3. 東西醫學報

1) 育兒新法

著者: 기록 없음

第 8號 (1917年 6月 30日)

新生兒의 調護法에 대하여 出生부터 順次的으로 說明하고 있는 連載物로 '溫浴' '被服' '峻下劑' 등의 題目으로 小兒에 대한 注意와 禁忌事項을 說明하고 있다. '溫浴'에서는 新生兒의 沐浴時 適當한 水溫과 함께 沐浴方法, 沐浴의 重要性을 자세히 說明하고 있으며, '被服'에서는 小兒의 呼吸運動을 방해하지 않고, 感冒를 豫防하기 위하여 따뜻하면서도 가볍게 옷을 입히도록 說明하고 있으며, '峻下劑'에서는 胎毒을 배출시키는 峻下劑의 사용을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의 잘못된 폐단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胎毒除去의 효과는 없고 단지 胃腸의 병을 만든다고 說明하고 있다.

4. 朝鮮醫學界

1) 小兒의 鼓脹症에 對한 最善의 處置 (西醫學 講座)

著者: 醫學士 小杉 文吉

第 1號 (1918年 3月 15日)

小兒의 鼓脹症에 대한 原因을 敍述하고 下劑는 一時的인 治療는 可能하지만 病의 原病을 더욱 不良하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마그네시아」의 內服과 坐藥插入에 대해서 說明하고 있으며, 治療에 있어서도 症狀을 잘 살펴 治療해야 함을 說明하고 있다.

2) 哺乳兒室扶斯에就하야 (比較的 稀有인 合併証을 兼호)

著者: 카스팔述 小杉 文吉抄譯

第 2號 (1918年 4月 15日)

小兒의 室扶斯病과 成人의 室扶斯病과의 差異를 說明하고 있으며, 特徵的 症狀이 없어, 營養失調과 區別이 어렵고 간혹 잘못된 診斷을 내리기 때문에 注意해야 한다고 記錄하고 있으며, 실제 臨床證例를 記錄함으로써 理解를 돕고 있다.

2) 育兒新法

著者: 기록 없음

- 第 1號 (1918年 3月 15日)
- 第 2號 (1918年 4月 15日)
- 第 3號 (1918年 5月 15日)
- 第 5號 (1918年 6月 16日)
- 第 6號 (1918年 8月 16日)
- 第 7號 (1918年 8月 15日)
- 第 8號 (1918年 10月 15日)
- 第 9號 (1918年 12月 15日)
- 第 10號 (1919年 2月 15日)
- 第 11號 (1919年 9月 15日)

新生兒의 調護法에 대하여 出生부터 順次的으로 說明하고 있는 連載物이다. '小兒의 嗜好', '小兒의 玩具', '小兒의 遊戲' 등의 題目下에 小兒에 대한 注意 및 禁忌事項을 說明하고 있다. 新生兒의 膿漏眼, 胎髮, 授乳의 規律, 小兒의 啼泣, 哺乳兒의 哺乳法, 小兒의 沈床, 愛玩의 害, 外出의 時期, 頭巾과 襁褓, 母乳, 母乳禁忌, 乳母, 乳母의 攝生法, 獸乳의 榮養法, 牛乳의 鑑識法, 凍乳, 哺乳器, 人工營養法, 斷乳의 時期, 哺乳休止後榮養法, 護兒人, 種痘, 小兒의 特性, 小兒의 旗號에 關하여 說明하고 있다.

3) 生月과 小兒의 智鈍

著者: 기록 없음

第 3號 (1918年 5月 15日)

小兒의 生年月과 學業成績을 男女의 性別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보통 1~3月生이 많고, 5, 6, 10月生이 적으며, 學業成績에 關해서는 5月生이 최고로 좋으며, 3月生이 그 다음이고 1月生이 제일로 낮고, 대체로 年齡이 많을수록 成績이 良好하고, 圖書科에는 5, 9月生이 優秀하고 國語科는 5~10月生이 良好하고, 全學科에서 보면 적은 數의 月에 出生한 아이가 成績이 良好하고 많은 數의 月에 出生한 아이가 成績이 不良한 바로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하였다.

5. 東西醫學研究會月報

1) 小兒營養法

著者: 伊藤景一

第 2號 (1924年 1月 30日)

元山 總支部의 講壇에서 講義한 內容을 적어 놓은 것으로 母乳를 天然營養法으로 指定해놓고 母乳授乳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이나 금기사항 등을 적어 놓았으며, 母乳의 成分에 대한 설명, 授乳의 時間이나 方法과 頻度에 대하여 敘述하고, 母乳를 끊고 離乳時期에 들어서면서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小兒期結核撲滅策

著者: 日本의 衛生要意 翻譯

第 5號 (1924年 5月 1日)

小兒期 結核에 대한 설명과 함께 肺結核의 治療에 있어 Tuberculin 요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患者隔離의 필요성과 함께 結核에 관한 智識의 普及에 대한 필요성을 敍述하고 있다. 특히 小兒에서의 發生率이 높아 學齡兒童과 小學校에서의 結核智識 普及을 강조하고 있으며, Tuberculin 요법에서는 이미 發病한 結核菌의 治療效能은 있으나 結核疾患의 豫防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6. 東西醫報

1) 赤痢、大腸加答兒治療劑 우로메진[ウロメチン] UROMETINE

著者: 기록 없음

昭和 4年 2月 (1929年 2月 10日)

小兒의 炎症性 腸疾患에 사용되었던 新藥製劑 우로메진을 소개하고 있다. 成分과 適應症을 기록하고 있으며, 藥理作用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記述하고 있다. 細菌性 赤痢와 아메바성 赤痢, 假性 赤痢에 사용하거나 기타 炎症性 腸疾患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2) 醫學博士天兒民惠先生創製 小兒腸障礙에 대한 拮抗療法新劑 지스베신[ヂスベシン] (DYSPESIN)

著者: 기록 없음

昭和 4年 2月 (1929年 2月 10日)

小兒의 腸疾患 治療劑 지스베신을 소개하고 있다. 用法에 대하여 적고 있으며, 適應症으로 幼兒에서 小兒까지의 消化不良, 急慢性腸障礙, 여름철 下痢, 小兒赤痢와 疫病, 腸穿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였으며, 抗生劑와 같이 服用하지 않도록 禁忌事項도 적어 놓고 있다.

7. 漢方醫藥

1) 小兒病治療法

著者: 趙憲泳

第 34號 (1940年 12月 25日)

小兒의 虛弱症狀으로 氣虛, 陽虛, 陰虛, 心虛에 대한 症狀과 使用할 수 있는 處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說明하고 있다. 心虛와 血虛, 肝虛와 腎虛는 서로 相通되는 證으로 보고, 辨證에 따라 處方을 區別하였다.

8. 東洋醫藥

1) 小兒科學 講義

著者: 東洋醫藥大學教授 金永勳
第 1 卷 第 1 號 (1955 年 4 月 30 日)

晴崗醫鑑의 著者 金永勳이 小兒의 '初生門'과 '診察門'의 題目으로 小兒의 保養法과 함께 小兒의 診斷法을 소개하고 있다. '初生門'에서는 小兒의 生理的 病理的 特徵과 함께 氣候에 따라서 옷을 입히더라도 등과 배는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注意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七情과 厚味를 制限하여야 小兒이 病에 걸리지 않는다"하여 어머니의 授乳에 대한 重要性을 強調하였고, 『東醫寶鑑』의 養子十法과 各 疾病의 原因에 대한 說明을 敘述하고 있다. '診察門'에서 小兒의 診斷에 觀形察色, 聽聲, 審病, 切脈, 五臟形證虛實相乘에 관한 說明과 함께 小兒의 壽夭를 鑑別하는 方法과 死證候에 대해서도 敘述하고 있다.

2) 小兒之病은 果然 難治인가?

著者: 象王山人 鄭寅傑
第 1 卷 第 1 號 (1955 年 4 月 30 日)
第 1 卷 第 2 號 (1955 年 6 月 30 日)
第 1 卷 第 4 號 (1955 年 10 月 20 日)

小兒治療의 어려움과 함께 小兒의 保健에 대한 重要性을 說明한 뒤 小兒 初生病에 대한 韓醫學的 救急法, 小兒 預治法, 小兒 診察法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小兒가 胎毒으로 인하여 發生할 수 있는 小兒의 독특한 雜病에 대한 治療法도 敘述하고 있다.

3) 나의 小兒 結核觀

著者: 岐軒 李根英
第 1 卷 第 2 號 (1955 年 6 月 30 日)

結核感染에 대한 時期別 症狀을 說明하고 있으며, 漢醫師가 誤診할 수 있는 肝氣, 腹癰, 疳證이나 洋醫學의 消化不良症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이러한 症狀들이 小兒期 結核의 初期 症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注意하여 살핀 후에 단순한 胃腸藥으로 治療를 하기 보다는 進歩된 結核 豫防法이나 結核 治療法을 使用하도록 敘述하고 있다.

4) 原因不明熱과 小兒變蒸論에 對하여

著者: 天保醫院長 漢醫師 朴盛洙
第 3 卷 第 2 號 (1957 年 3 月 31 日)

小兒의 不明熱을 小兒의 變蒸論의 概念으로 認識하고 變蒸에 관한 定意와 함께 變蒸論의 概念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東醫寶鑑』에 收錄되어 있는 "小兒變蒸俗謂之牙生骨長比如鷲之有眠龍之蛻骨虎之轉爪皆同此類變生而長也 <醫林>"란 條文을 引用하여 變蒸候를 定意하고 있으며, 變蒸候에 대한 病理的 概念이나 傷寒과의 鑑別에 있어서도 東醫寶鑑의 內容을 따르고 있다.

9. 東方醫藥

1) 漢醫師 國家試驗 豫想問題 (小兒科學)

著者: 기록 없음

第 4分 1號 (1958年 2月 1日)

小兒科學 豫想問題로 總 7問題가 收錄되어 있다. 問題를 적어 놓은 뒤에 答案을 敘述하고 있으며, 驚風, 五臟所主, 小兒天弔症, 丹毒, 五癩, 胎毒, 胎寒, 胎熱, 胎毒, 小兒 熱病의 脈象에 관한 內容을 묻는 問題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주로 分類에 따른 原因과 症狀, 處方을 敘述하는 식의 형태를 取하고 있다. 正答에 적혀 있는 分類와 原因 症狀 등은 東醫寶鑑의 內容을 따르고 있다.

考察

現代社會에서 醫學은 눈부신 發展과 큰 變化를 맞이하고 있으며, 西洋醫學의 問題點을 韓醫學으로 克復하고자 하는 研究가 활발해짐에 따라 특히 小兒科 分野에 있어 韓方治療를 요구하는 國民적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어, 韓方小兒科를 主要 診療科目으로 표방하는 韓醫院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治療技法 등을 導入하여 韓醫學的 診療領域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⁹⁾.

社會의 政治, 經濟, 文化가 變化함에 따라 醫學도 變化할 수 밖에 없으며¹⁰⁾, 현재의 韓方小兒科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時代的, 歷史的 環境이 變化함에 따라 韓方小兒科學이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필요하며²⁾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韓方小兒科學이 지향해야 할 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韓醫學은 檀君時代부터 進승된 民族固有의 醫學에 中國의 醫學이 유입되어 學術的 體系를 구비하였고, 그 후 수 천년의 歷史를 면면하게 계승해 오면서 自主性을 지닌 民族 傳統醫學으로 토착화 되었으며, 國家의 유일한 醫學으로 國民保健을 위한 醫療施惠를 전담하여 왔다¹¹⁾.

특히 朝鮮後期에 접어들어 韓醫學은 상당한 發展을 이룩하였고, 『東醫寶鑑』의 出現을 계기로 宗래 經驗爲主의 醫學에서 實證主義 醫學을 지향하고자 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¹⁾, 당시의 觀念的 學風인 性理學을 떨쳐 버리고 考證과 實證을 중시하는 實學的 思潮가 醫學에도 영향을 미쳐 臨床을 중시하는 專門書籍들이 간행되어 韓醫學의 自主的 傳統을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³⁾.

『東醫寶鑑·小兒門』에는 近代 小兒科學의 중요한 각종 病論을 거의 포함하고 있어 당시 小兒科에 대한 智識水準이 상당히 進展된 것을 볼 수 있으며¹²⁾, 實證的 學風의 刺戟과 影響으로 小兒科學에 관한 傳聞方書 들이 많이 간행되었다¹⁾.

우리나라 最初의 小兒科 專門書籍인 趙廷俊의 『及幼方』을 비롯하여, 『麻科會通』, 『麻疹彙成』, 『麻疹方』 등의 小兒 麻疹 專門書가 출간되어, 韓方小兒科學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¹⁾.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西洋醫學의 流入으로 兩大醫脈을 형성하면서¹³⁾ 沈滯期를 보이던 차에 日帝侵略에 의한 西洋醫學 爲主의 醫療政策, 醫療制度上 韓醫學의 疏外, 韓醫學 教育機關 設立의 不許, 醫生制度의 導入 등 韓醫學 抹殺政策으로 인하여 主體的으로 西洋醫學 智識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韓方小兒科學 자체의 存立마저도 위태로

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⁶⁾.

日帝 侵略期에 韓醫界는 「東醫寶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와 같은 學術雜誌 刊行⁷⁾, 「全鮮醫會」, 「東西醫學研究會」, 「東洋醫藥協會」와 같은 韓醫師 團體 結成⁷⁾, 「公認醫學講習所」, 「京畿道立 醫生講習所」, 「京城皇漢醫學院」과 같은 韓醫學 教育機關의 設立³⁾ 등의 方法으로 韓醫學의 連續性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韓醫學은 여러 方面으로 큰 變化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日帝時代의 社會 文化的 背景을 이해하고 당시의 韓醫學의 學術傾向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는 많지 않으며, 특정 한 분야에 있어서의 學術的 傾向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日帝時代와 光復 以後 발행된 韓醫學術雜誌를 연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당시의 時代的 背景과 韓方小兒科의 學術的 傾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國家知識情報化事業의 일환으로 韓國韓醫學研究院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韓醫學 古典文獻과 함께 日帝時代 및 光復 以後의 韓醫學術雜誌 12種 80券을 Data base하여 한의 학지식정보자원 웹사이트 (<http://jisik.kiom.re.kr>)를 통하여 原文提供하고 있으며, 이 중 小兒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學術雜誌 9種 31券을 정리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당시의 時代的 背景을 바탕으로 考察함으로써 현재의 韓方小兒科를 再認識하고자 하였다.

日帝時代에 刊行된 學術雜誌의 嚆示는 「漢方醫藥界」로 韓方醫學의 改良과 韓醫學의 研究 精進을 위한 韓醫學 連續性 維持 목적으로 1913년 朝鮮醫生會에서 월간지 형태로 발간하였으나 2號를 끝으로 폐간되었고, 이후 全國醫生大會를 계기로 全鮮醫會가 창간한 학술기관지인 「東醫寶鑑」이 1916년 간행되었으나 이마저도 2號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다⁷⁾.

1917년 全國의 韓醫들을 교육시켜 韓醫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東西醫學報」가 刊行되었으며, 8호를 마지막으로 「朝鮮醫學界」란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 續刊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漢方醫藥界」와 「東醫寶鑑」과는 달리 公認醫學講習所에서 강의된 내용을 싣고 있는 강의록 형식의 잡지로 「東西醫學」이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東醫學의 內容만 서술한 것이 아니고 西醫學과 東醫學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식으로 東西醫學을 두루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 당시 韓醫들을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⁴⁾.

1913년부터 1917년까지 韓醫學界에서 간행된 「漢方醫藥界」, 「東醫寶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4種의 學術雜誌에 「小兒生長調護論」, 「育兒新法」, 「小兒의 鼓脹症에 對한 最善의 處置」, 「哺乳兒 窒扶斯에 就하야」, 「生月과 小兒의 智鈍」이란 제목으로 小兒와 관련된 글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 글들 중 傳統의인 韓醫學의인 內容을 포함하고 있는 글은 단지 「漢方醫藥界」의 「小兒生長調護論」뿐이고 나머지 글들은 西洋醫學의인 內容으로 이루어져 있다. 「漢方醫藥界」의 경우 韓醫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西洋醫學의인 內容보다는 傳統의 韓醫學에 대한 內容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小兒科 분야에서도 傳統의인 韓醫學智識을 소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에서는 小兒와 관련된 西醫學의인 內容만을 포함하고 있다.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는 韓醫學界에서 간행한 學術雜誌이긴 하지만 韓醫들에게 강의한 內容을 중심으로 雜誌에 싣고 있어, 小兒科 領域에 있어 韓醫學의인 內容보다는 西醫學의인 內容에 대한 강의가 主流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漢方醫藥界」에 수록된 「小兒醫方」의 著者인 崔奎憲이 쓴 「小兒生長調護論」은 태어난 후의 拭口法부터 날짜별로 小兒의 成長變化 및 調理法을 소개하고 있으며 32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變과 64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變蒸候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東西醫學報』의 ‘育兒新法’에서는 新生兒의 調護法에 대하여 出生부터 順次的으로 설명하고 있는 連載物로 ‘溫浴’, ‘被服’, ‘峻下劑’ 등의 소제목으로 小兒에 대한 注意 및 禁忌事項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朝鮮醫學界』에 같은 ‘育兒新法’이란 제목으로 계속 연재되었고, ‘小兒의 嗜好’나 ‘小兒의 玩具’, ‘小兒의 遊戲’란 소제목으로 앞서 강의한 小兒의 調護法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이 외에도 『朝鮮醫學界』에서는 ‘小兒의 鼓脹症에 對한 最善의 處置’와 ‘哺乳兒 窒扶斯에 就하야’란 제목으로 小兒의 鼓脹症과 小兒의 窒扶斯에 대한 西洋醫學의인 내용을 실고 있다.

1910년대 韓醫界에서 간행한 잡지 이외에 西洋醫學 중심의 『醫藥月報』에서도 小兒에 관한 東西醫學의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醫藥月報’는 醫藥講習會에서 통신강의를 목적으로 平壤醫藥講習會에서 발행한 강의록 형식의 잡지로¹⁴⁾ ‘兒科學’, ‘小兒結核 及 百日咳의 藥物療法에 對하여’, ‘사체검안해부검사기록’, ‘小兒養育의 新法’, ‘小兒의 痙攣及療法’이란 소제목으로 西洋醫學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奇異한 病及治療’, ‘婦人小兒論’, ‘小兒症候의 各論’, ‘養兒의 法’이란 소제목으로 小兒와 관련된 韓醫學의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兒科學’에서는 小兒의 解剖學的 構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의 系統分類와 동일하게 消化器, 泌尿器, 皮膚, 臍帶, 筋肉, 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후반부에 小兒의 營養障礙나 傳染病에 대한 豫防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小兒의 營養이나 傳染病에 대한 西洋醫學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小兒의 痙攣及療法’에서는 痙攣을 氣質的, 中毒性, 癲癇性, 重症 營養障礙로 인한 痙攣으로 原因에 따라 分類하였고, 蓖麻子油나 茴香茶를 이용한 瀉法이나 吐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西洋醫學의인 내용이지만 韓醫學理論에 가까운 療法를 설명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이 외에 小兒의 結核과 百日咳에 대한 藥物療法와 小兒死體를 檢案하여 死因을 규명하고자 한 기록, 美國에서 있었던 小兒의 우유마시기 대회를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韓醫學의인 내용으로는 ‘奇異한 病及治療’에서 韓藥 石雄黃의 效能에 대한 證例를 설명하고 있고, ‘婦人小兒論’에서는 小兒와 婦人科 疾患의 어려움을 古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小兒는 抑肝補脾를 根本으로 清熱利水를 標로 삼아 치료해야 하고, 問診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診斷에 慎重을 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小兒症候의 各論’에서 吐瀉, 厥逆, 風寒暑熱, 瘡疹, 痘毒은 視診으로 판단하며, 臟腑에 있어서는 三部九候法을 사용하고, 睛明穴의 色을 보고 診斷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洋方的 內容에 있어서는 著者 앞에 醫師라는 職責을 표시하고 있으나 韓醫學 內容의 著者 앞에는 漢法師 또는 漢法醫生으로 표현되어 있다.

醫生은 1913년 韓醫를 醫生으로 格下시켜 醫業에 종사하도록 한 日帝時代의 韓醫學 抹殺政策의 일환으로 공포되었으며 傳統醫療의 중심인 韓醫들은 醫生이라는 멸시된 이름으로 認許를 받지 않고 떠나버린 이들도 많았으며¹⁵⁾, 韓醫學 中心의 韓醫學術雜誌에서는 醫生이란 川語를 사용하지 않고 著者 이름만을 언급한 것을 볼 때 韓醫學을 守護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1920년대 간행된 韓醫學術雜誌로 당시 韓醫師 團體라고 할 수 있는 東西醫學研究會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는 잡지로 東西醫學研究會 任員들이 쓴 連載物과 同會 會員들의 기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東醫學과 西醫學을 결합시켜 溫故知新의 자세로 韓醫學을 復興 發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으나^{7,8,14)} 小兒科 分野에 있어

서 韓方의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小兒營養法’과 ‘小兒期結核撲滅策’이란 소재목으로 西洋醫學의인 내용만을 실고 있다.

『漢方醫藥』은 1937년에 忠淸南道 漢方醫學協會에서 발행한 學術雜誌로 地方의 韓醫藥團體에서 발행한 통신강의록 성격을 띠고 있으며, 地方團體의 組合員들에게 韓醫藥 智識을 전파하고 이를 통한 韓醫藥學術의 發展과 連續性 維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傳統의인 韓醫藥 中心으로 醫學과 藥學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⁴⁾, 『通俗漢醫學原論』의 著者인 趙憲泳이 ‘小兒病治療法’이란 제목을 통하여 小兒의 虛弱症狀들에 대한 설명과 小兒에게 사용할 수 있는 處方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1910年代에는 韓醫學 復興論의 擡頭期로 볼 수 있으며, 傳統韓醫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⁷⁾

『漢方醫藥界』의 ‘小兒生長保護論’, 『醫藥月報』의 ‘婦人小兒論’, ‘小兒症候의 各論’, ‘養兒의 法’이란 소재목으로 小兒와 관련된 韓醫學 智識을 다수 소개하고 있으나, 1920년대에서는 東西醫學의 折衝論이 大勢로 자리잡음으로 인하여 相對的으로 小兒科에서 西洋醫學의 曠기적 豫防法과 衛生論, 營養論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韓醫學界에서 간행된 『東西醫學報』나 『朝鮮醫學界』에서도 小兒와 관련된 西洋醫學의 智識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 西洋醫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점차 傳統醫學 回起論이 擡頭되면서 韓醫學術雜誌를 통하여 傳統韓醫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¹⁴⁾ 『漢方醫藥』의 ‘小兒病治療法’이란 제목을 통하여 小兒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處方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글 이외에도 많은 韓方小兒科와 관련된 韓醫學의 內容이 소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보존되고 있는 『漢方醫藥』이란 雜誌의 일부만만이 남아 있어 얼마나 더 많은 小兒와 관련된 韓醫學의 內容이 소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解放以後 東醫學의 學術振興을 강력히 展開하고자 1947년 東洋醫學會가 설립되었으며 東洋醫學會에서 東洋醫學의 新體系를 확립하고 民生保健의 완벽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東洋醫學』을 간행하였다. 내용에는 별도의 구분 없이 당시의 유명한 韓醫藥 關聯 論文, 臨床治驗例, 韓醫學 關聯 手筆 등 매우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小兒와 관련된 內容은 찾을 수 없었다.

1951년 韓醫師制度가 法規化 되고¹¹⁾, 1952년 大韓韓醫師協會가 결성된 뒤 大韓韓醫師協會의 기관지 같은 성격의 學術誌로 1955년에 쇠퇴해져 있는 韓醫學의 새로운 復興을 圖謀하고자 『東洋醫藥』을 간행하였고, 1957년 『東方醫藥』으로 이름만 바뀌어 간행되었다¹⁴⁾.

『東洋醫藥』에서는 ‘小兒의 初生門과 診察門’, ‘小兒之病 과연 難治인가’ ‘原因不明熱과 小兒變蒸熱에 對하여’, 『東方醫藥』에서는 ‘漢醫師 國家考試 豫想問題’를 수록하였다.

『晴崗醫鑑』 著者 金永勳의 ‘小兒의 初生門과 診察門’에서는 『東醫寶鑑』에 나오는 養子十法을 爲主로 小兒의 保養法과 小兒의 觀形察色, 聽聲察病, 切脈, 五臟形證虛實相乘, 死症候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나, 臨床的인 내용보다는 『東醫寶鑑·小兒門』¹²⁾을 인용한 理論的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原因不明熱과 小兒變蒸熱에 對하여’에서는 小兒의 原因不明熱을 小兒의 變蒸後의 概念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東醫寶鑑』¹²⁾의 條文을 인용하여 變蒸後를 정의하고 있다.

『東方醫藥』의 ‘漢醫師 國家考試 豫想問題’에는 주로 驚風, 五臟所主, 小兒天疳, 丹毒, 五癩, 胎毒, 胎寒, 胎熱, 胎畜에 대한 原因과 症狀, 處方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出題되어 있으며, 小兒熱病의 脈象을 묻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問題의 正答은 『東醫寶鑑·小兒門』을

옮겨 놓은 것으로 보서는 이 당시 대부분의 小兒에 관한 韓醫學的 智識이 『東醫寶鑑·小兒門』¹²⁾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光復以後의 韓醫學學術雜誌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韓醫學的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養生法이나 理論的인 내용보다는 실제 臨床에서 접할 수 있는 小兒의 疾患에 대한 韓醫學的인 智識들을 소개하고 있어 日帝時代以後보다 한층 더 多樣해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結論

1. 1910년부터 1960년까지 韓醫學學術雜誌 12種 80券 가운데 9種 31券의 雜誌에서 25가지의 小題目으로 小兒와 關聯된 內容이 著述되어 있었다.
2. 1910年代에는 小兒의 生理와 病理, 小兒의 診斷과 養育法과 關聯된 韓醫學的 內容과 西洋醫學的 內容이 混在되어 실려 있었다.
3. 1920年代에서 1930年代의 韓醫學學術雜誌에서는 小兒에 대한 西洋醫學的 內容이 主를 이루고 있으며, 小兒의 營養이나 傳染病 豫防과 關聯된 內容이 많이 敘述되어 있었다.
4. 1940年에서 光復以後에는 小兒와 關聯된 韓醫學的 內容이 많이 등장하며, 小兒의 辨證과 養生法, 診斷法, 變蒸候, 痙攣과 關聯된 內容들이 敘述되어 있었다.
5. 韓醫學學術雜誌를 통해 韓方小兒科學 分野에 있어 日帝의 彈壓 속에서도 西洋醫學的 長點을 吸收하고, 韓醫學的 連續性을 維持하기 위한 당시 韓醫들의 努力들을 엿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金德坤, 金允姬, 金璋顯, 朴恩貞, 白政翰, 李承蓮, 李進容, 張奎台. 東醫小兒科學. 서울. 鼎談出版社. 2002:19,25
2. 李勳, 李進容. 中國小兒科學의 史的 考察.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1999;13(1):65
3. 愼重完. 日帝侵略에 依한 韓方醫療制度廢絶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0:15,54,64-5.
4. 金重權. 『東醫寶鑑』의 文獻의 研究. 書誌學研究. 1995;11(1):212.
5. 서영민, 하기태, 김준기, 김장현. 『及幼方』에 手錄된 醫案에 대한 研究. 東醫生理病理學會誌. 2007;21(1):18.
6. 李鐘馨. 韓國東醫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7:266,288-94.
7. 鄭智薰. 日帝時代初期 韓醫學學術雜誌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1:3.
8. 鄭智薰. 韓醫學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的 傾向.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4:35.
9. 서영민, 김장현. 소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의원 웹사이트의 분석 및 고찰.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2006;20(2):46.

10. 李錦浚. 韓國近世 醫療政策에 關한 醫史學的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87;1:9.
11. 愼重完. 日帝侵略以後부터 1960年代初까지의 韓方醫療制度 變遷史에 關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88;2:37.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1662-3.
13. 盧正祐. 韓國醫學史.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7:831.
14. 申순식. 韓國韓醫學史 再定立. 韓國韓醫學研究所. 1995:175-6,180,184,222,248.
15. 南銀祐. 政治經濟學的 側面에서 본 日帝下의 保健醫療. 高神大學論文集. 1989;17:369.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근세 한방소아과의 학술적 경향
(1910년부터 1960년까지)

서영민, 김장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연구목적: 한방소아과학은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일제침략기에 이르러 서양의학의 유입과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점차 쇠퇴해져 갔다. 한의계는 일제의 한의학말살정책에 맞서 한의학술잡지를 간행하였으며, 이는 근세 한방소아과학의 학술적 경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사이트에 있는 12종 80권의 한의학술잡지 중 소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9종 31권의 학술잡지를 조사하였다.

결론 및 고찰: 이러한 학술잡지를 조사함으로써 당시의 한방소아과학의 학술적 경향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작용과 서로의 장점을 균형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한방소아과학, 학술잡지, 일제시대

서영민 : 720126-1006026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소아과

교신저자 : 김장현 560510-1057428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주소 : 서울 서초 방배동 3001-2 방배디오수페리움1 A동 2502호

연락처 : 011-9923-6705